

아파트 건축비 상승 압박

철근·레미콘 등 전자재값 급등 ... 일부 품귀현상까지 “적자 시공 우려 ...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재검토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주택건설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 아파트시장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대책없이 쌓인 가운데 자재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건축비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자재 전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당수 지방의 아파트건설현장이 공기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향후 수익률 악화로 ‘적자시공’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대구시가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철폐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식 건의한

것을 계기로 광주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 건설현장에서 거래되는 철근값이 톤당 65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54만3천원)에 비해 19.7%(10만7천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1월(46만3천원)보다는 40.4%(18만7천원)나 급등했다.

철근은 특히 전체 전자재 구매비용의 25%를 차지할 만큼 건설원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각 건설현장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철근의 품귀현상과

함께 전자재 전품목의 가격이 덩달아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레미콘은 지난해 10월 m당 4만9천200원에서 현재 5만1천300원으로 4.4% 오른 데다 신규 계약물량의 경우 10% 가량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레미콘 가격 상승은 모래 품귀현상과 유류대 상승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모래의 경우 지난해 10월 m당 1만원에서 현재 2만2천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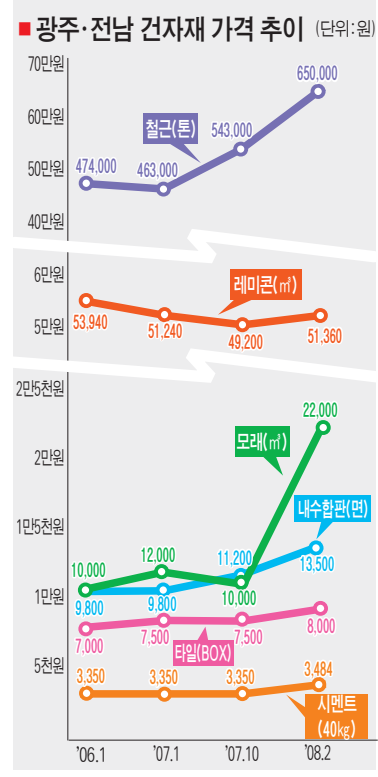
마감재 가격도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내수합판은 국제 목재값 상승으로 인해 한 매당 1만3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1만1천200원)에 비해 20.5%나

오른 것이다. 또 타일가격도 박스당 8천원으로, 4개월 만에 6.7% 오르는 등 전자재 전 품목이 ‘도미도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을 미루거나 분양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건축비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적자 시공’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올해 철근값 상승분만으로도 최소 3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당수 건설현장이 공사를 멈춘 채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공비 부담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치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원자재 인상에 따른 시공비 상승분이 표준건축비에 제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기아차, 직원 부인 700여명 초청 방문행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난 22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남편이더 방문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 행사는 광주공장에 재직중인 직원 부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오는 5월 30일까지 모두 700여명의 직원 부인들이 차수별로 100여명씩 7회에 걸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부인들은 광주공장 의전관에서 사측 인사로부터 경영현황 등을 경청한 후, 남편이 근무하는 단위공장을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자동차 생산의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3공장 봉고트럭 조립라인을 찾은 주부 김승희(30·광주 서구 화정동)씨는 “광주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이 자랑스럽다”면서 “가정의 화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남편이 직장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조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일 기아차 광주공장장은 “가장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정은 물론 기아차 광주공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 하반기 생산예정인 신차 AM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AM의 안정적인 양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차 AM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 4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 명실상부한 선진글로벌 자동차 공장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광주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하우징 자재산업 육성방안 워크숍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센터 하우징자재혁신사업단은 지난 22일 광주디자인센터 4층 대세미나실에서 지역 하우징관련 제조기업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IS사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하우징자재 산업육성방안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지역 하우징자재산업육성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경남 진주의 실크밸리 구축사업, 제주의 건강·뷰티분야 육성사업 등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디자인 표현처리 기법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하우징자재혁신사업단은 17개 참여기업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디자인·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경제지표 ‘호전’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광주·전남은 제조업 생산이나 소비활동 등 대다수 지표가 회복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전남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 부분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가계의 소비심리가 여전히 냉랭한 데다 건설부문의 일부 업종의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등 경제회복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 지역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생활형편 CSI는 87로, 3·4분기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건설부문의 체감경기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4·4분기 아파트 공공이 잇따르면서 건축비가 면적, 레미콘 출하량 등이 동반 증가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미분양 아파트가 1만3천가구 이상 쌓인 데다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남권 기술혁신박람회

26~27일 DJ센터

서남권 커넥트코리아협의회가 26~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8 서남권 기술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우수혁신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며, 연구개발 결과를 전시와 함께 기술상담회, 기술전시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서남권 커넥트코리아협의회는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 등 5개 유관기관과 전남대·조선대·전북대·제주대 등 서남권 지역 대학으로 구성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시 中企 수출 지원책 마련

광주시가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보험료 지원금 인상, 박람회 참가지원, 등 모두 13가지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장 개척단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북미, 유럽,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의 거점 도시에서 활로 개척에 나선다. 시는 또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부스임차료, 물품운송료, 통역료, 항공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4천만원

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해외 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 해외 무역관에서 수출업체를 대신한 현지 마케팅 실시 등 마케팅 지원 사업도 벌인다. 수출을 돕기 위해 수출신용보증보험 등 수출보험료 지원 금액을 업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수출진흥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허남석 광양제철 소장 부사장 승진

포스코 정기주총

허남석 전무(광양제철소장·사진)가 지난 2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사회는 윤용철 상무(선강담당 부소장), 조창환 상무(설비담당 부소장)를 유입시킨 한편 공윤찬 상무(인재개발담당)를 광양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으로, 조준길 포항제철소 압연담당 부소장을 광양제철소 압연담당 부소장으로 선임했다. 또 이육산 도금부장은 상무급 Fellow(광양제철소 자동차관공기술분야 전문가 엔지니어)로 승진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허 소장은 마산고와 부산대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4년 8월 POSCO에 입사한 이래 풀콘 포항과 광양의 제철 분야 조업기술 향상에 전념해왔다.

이후 꾸준한 학력으로 순천대학교에서 금속석사과 금속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특히 광양제철소의 1고로에서부터 5고로까지의 건설과 조업에 참여함으로써 광양 고로의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